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 :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희경** · 김은정***

초 록

본 연구는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설정된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43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 공격성에 관한 자기보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한 연구모형을 상정하였고, 이 연구모형을 정서 변인들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한 대안모형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 변인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 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애착, 공격성, 아동,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매개효과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1년 임상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국립서울병원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kej@ajou.ac.kr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 행동 및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격성과 폭력 행동은 아동의 가장 빈번한 문제 행동 중 하나이고(Orpinas & Frankowski, 2001), 초기 품행 문제는 정신병리적 진단, 약물 남용, 청소년기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친구로부터의 거부와 중기 아동기 학업 실패를 포함한 미래의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등 이후의 삶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른 나이에 나타난 품행 문제와 위험요인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Lochman & Salekin, 2003). 따라서 공격성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상 발달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 더 많이 사용되어왔던 애착 이론이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체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을 포함한 여러 행동 문제가 부모와의 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었다(박정녀·최해림, 2005; 옥정 외, 2001; 이소희 외, 2002; 한상우 외, 1997; Crittenden, 1992; Turner, 1991; Muris et al., 2004). 그러나 애착이 어떤 기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로,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찾아 실제적인 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Bowlby(1973)는 애착관계가 형성, 유지, 붕괴, 재생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정서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애착의 정의에서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서가 애착관계의 중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Hazan et al., 2004; 신지욱, 2006에서 재인용). 또한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정서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들어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정서적 능력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가 이론화되고 있으며(Bohnert et al., 2003), 정서적 능력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애착 및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 변인의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서 변인으로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 및 정서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과 공격성, 애착과 정서, 공격성과 정서 간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상관을 보는 연구에 그치고 있거나 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 각각의 역할만을 보여주고 있어,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나 정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정서 변인인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애착이 어떤 경로를 거쳐 공격성에 이르는지를 밝힘으로써 공격적인 아동의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인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애착과 공격성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생애 초기 유아와 주양육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Bowlby(1958)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양육자가 아동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일 때 아동은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느끼고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좌절을 경험하고 이 좌절이 공격성을 일으키게 된다(Berkowitz, 1993). 이는 개인이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이 정서와 기억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 감정을 더 잘 기억하고 처리하게 하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게 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Laible & Thompson, 1998).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불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적응적 관점을 가지며, 아동은 의존, 충동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위험에 취약하게 된다(Simon et al., 2001). 이는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개인의 공격적인 행동의 발달과 진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Gomez & McLaren, 2007).

유아와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일차적인 양육자가 어머니이고,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착은 주로 어머니와 연관지어 관찰되거나 연구되어 왔다. 게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 애착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와의 애착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유혜경·남현우, 2010), Simo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보고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등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의 중간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 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1) 애착과 정서 및 공격성

애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서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애착 이론가들은 초기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초기 관계가 정서조절과 감정표현 발달에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Thompson et al., 1995; Laible, 2007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도 애착과 정서 변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애착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애착이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으며(류수정, 2010),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부모 애착 그리고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이시은과 이재창(2005)의 연구에서도 거부형의 부모 애착은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몰두형의 부모 애착은 정서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사람은 정서표현과 조절에 있어 적응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음이 지지되고, 반대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정서표현을 과잉 조절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rns et al., 2007; Kobak et al., 1993).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정서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정서적 능력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서 평가, 표현, 이해로 구성된 정서적 능력에서의 차이가 공격적인 아동들의 공격 행동 수준과 관계되는지를 살펴본 Bohnert et al.(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평가는 공격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더 강렬하고 빈번한 분노표현은 높은 수준의 공격 행동과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황에서의 낮은 정서이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한유진(2006)의 연구에서도 정서이해,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이해는 개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는 것으로, 정서를 스스로 알고 의식하는 과정을 정서인식(emotion awareness)이라고 하며,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Mayer & Salovey, 1995).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연구한 Swinkels와 Giuliano(1995)에 따르면 정서인식 과정 중 특히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정서인식의 명료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서에 대해 정확하게 명명할수록 더 적응적이고(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5), 정서인식의 부족은 많은 대인 간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tzer et al., 2005). Cook et al.(1994)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외현화 증상을 가진 학령기 아동들은 지난 정서경험의 예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정에 대해 덜 적절한 예를 제공하였다. 정서표현 또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Arsenio & Killen, 1996), 공격적인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아동은 그들의 또래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hnert et al., 2003; Cook et al., 1994; Hubbard, 2001). 또한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들은 공격 행동을 보인다고 평가된 아동이 그들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4), 대부분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기능적 정서조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박성연·강지훈, 2005; 박혜경·박성연, 2002; 손지영, 2002; Bohnert et al., 2003; Shields & Cicchetti, 1998).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애착과 공격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정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착과 정서 및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후기 청소년기의 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행동 및 공격 행동 간의 관계를 정서 능력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Laible(2007)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을 보고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은 긍정적 표현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공감을 촉진함으로써 공격 행동을 낮추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 능력을 통해 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지연과 이은희(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애착 불안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김선숙(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적개심과 분노 같은 아동의 심리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 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주었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관련이 있고, 공격성은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변인으로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상정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서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

다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변인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함에 있어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Mayer et al.(1992)은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이런 특성을 가진 개인은 좀 더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임전옥과 장성숙(2003)의 연구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영향을 주었으며, 이서정과 현명호(2008)의 연구에서도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성이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조절 과정은 정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므로 정서조절에 앞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Denham et al.(2003)은 정서표현이 정서조절을 예측한다고 하였고, 김지영(2007)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성이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성이 높은 사람들은 적응적인 조절전략을 더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조절전략을 덜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정서조절에 선행하는 것으로 정서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 조절로 설정된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모형으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간접 경로를 포함하는 연구모형

1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간접 경로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 2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하나 이상의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할 수 있으므로 경쟁적인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Breckler, 1990),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사회적 행동 사이에서 정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단순히 살펴본 선행연구(Laible, 2007)에 기초하여 정서 변인들이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공격성은 초등학교 동안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Cillessen et al., 1998; Shaw & Campo-Bowenm, 1995; Ramsden & Hubbard, 2002에서 재인용), 어린 아동에 비하여 고학년 학생들을 연구함으로써 공격성을 보다 안정적인 현상으로 연구할 수 있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지역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480명을 임의표집 하였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교실에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6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5학년은 183명(42%), 6학년은 253명(58%)이고, 남자가 196명(45%)이고, 여자가 235(53.9%),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가 5명(1.1%)이다. 평균 연령은 12.54세(SD= .52)로 그 범위는 11세부터 13세에 해당한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를 정동화(1996)가 번안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21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 타인에 대한 의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동화(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다.

2)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이 개발한 애착척도 개정본(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애착만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25문항으로,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으로 구성되어있고, 번안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다.

3) 정서인식의 명확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et al.(1995)이 개발한 특질 초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특질 초기분 척도 중 자신의 정서를 의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3이다.

4) 부정적 정서표현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고자 King과 Emmons

(1990)에 의해 제작된 정서표현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표현 질문지(EEQ)는 단일 구성 척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친밀감 표현 세 하위 척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이주일 외, 1997)에 근거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고자 부정적 정서표현 하위요인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번안 당시 하정(1997)이 보고한 부정적 정서표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63였고, 본 연구에서 .52이다.

5) 역기능적 정서조절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의 개인차를 평가하기 위해 Phillips와 Power(2007)가 개발한 정서조절 질문지(Regulation of Emotions Questionnaire: RE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hillips와 Power(2007)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체 18문항, ‘개인내-기능적 정서조절(5문항)’, ‘개인내-역기능적 정서조절(5문항)’, ‘개인간-기능적 정서조절(3문항)’, ‘개인간-역기능적 정서조절(5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내-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개인간-역기능적 정서조절’ 10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Phillips와 Power(2007)는 내적 합치도 계수를 각각 .72, .76라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63, .77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처리를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은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종 선택된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6.0을 이용해 bootstrap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하나

의 측정치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인은 그 변인을 측정하는 한 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et al.(1998)의 제안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여 2~3개의 점수로 나누어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 검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들 중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χ^2 값과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적합도 검증을 위해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TLI(Tru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를 제시하였다(홍세희, 2001).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RMSEA의 경우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라 평가되고, .10이상이면 모델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또한 여러 개의 경쟁모형들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결적합도지수인 PNFI(Parsimony Normed Fit Index), PCFI(Parsimony Comparative Fit Index) 및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제시하였다. PNFI와 PCFI는 더 높은 값을 가지는 모형이, AIC는 더 낮은 값을 갖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다(이학식·임지훈, 2007).

IV. 결 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표현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애착과 공격성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더 공격적임이 나타났다. 애착과 정서 변인을 살펴보면, 애착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역기능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공격성과 정서 변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는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표현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 상관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애착	1. 신뢰감	-													
	2. 의사소통	.80**	-												
	3. 소외감	.48**	.39**	-											
정서인식 명확성	4. 명확성1	.29**	.24**	.29**	-										
	5. 명확성2	.27**	.26**	.15**	-.51**	-									
	6. 명확성3	.30**	.29**	.24**	.52**	.57**	-								
부정적 정서표현	7. 표현1	.00	.08	-.19**	.02	.09	.09	-							
	8. 표현2	.01	.06	-.20**	-.06	.05	.04	.47**	-						
역기능적 정서조절	9. 내적	-.14**	-.05	-.40**	-.32**	-.10*	-.19**	.29**	.25**	-					
	10. 외적	-.21**	-.15**	-.31**	-.16**	-.10*	-.07	.22**	.24**	.42**	-				
공격성	11. 신체적	-.20**	-.14**	-.30**	-.16**	.00	-.02	.24**	.35**	.34**	.55**	-			
	12. 적의성	-.26**	-.18**	-.35**	-.23**	-.08	-.13**	.19**	.20**	.42**	.43**	.51**	-		
	13. 언어적, 의심	-.22**	-.10*	-.34**	-.22**	-.09	-.13**	.27**	.31**	.42**	.55**	.55**	.63**	-	
	14. 분노	-.23**	-.15**	-.37**	-.22**	-.08	-.10*	.20**	.29**	.41**	.59**	.63**	.68**	.68**	-
평균		31.33	26.93	17.69	13.05	10.34	14.00	7.68	6.73	12.94	10.53	15.94	12.74	13.63	8.50
표준편차		5.01	5.46	3.10	2.66	2.54	2.59	2.35	2.57	3.98	4.08	5.40	4.61	4.74	3.36

** $p < .01$, * $p < .05$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어머니와의 애착,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 공격성 등의 5가지 잠재변인을 가진 하나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애착과 정서인식의 명확성 각각에 대한

3개의 측정변인과, 부정적 정서표현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각각에 대한 2개의 측정변인, 공격성에 대한 4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측정변인이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값은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값을 보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67, N=436)=249.67$, RMSEA=.079, CFI=.927, TLI=.901로 대체로 수용 가능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개의 연구모형과 1개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을 매개하는 연구모형 1과 이 모형에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2,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대안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그림 1, 2,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연구모형 1과 2를 대안모형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그리고 대안모형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연구모형 1, $\chi^2(71, N=436)=253.58$, TLI=.907, CFI=.927, RMSEA=.077; 연구모형 2, $\chi^2(70, N=436)=252.89$, TLI=.905, CFI=.927, RMSEA=.077; 대안모형, $\chi^2(71, N=436)=311.62$, TLI=.877, CFI=.904, RMSEA=.088). 또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대안모형보다 더 좋고, 간절적합도지수인 PNFI와 PCFI 또한 연구모형 1과 2가 대안모형보다 높았으며, AIC 지수는 연구모형 1과 2가 대안모형보다 낮아(연구모형 1, PNFI=.704, PCFI=.723, AIC=349.577; 연구모형 2, PNFI=.694, PCFI=.713, AIC=350.889; 대안모형, PNFI=.687, PCFI=.705, AIC=407.619), 연구모형 1과 2가 대안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 변인들이 병렬적으로 매개하기보다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모두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부정적 정서표현이 매개하지 않고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 변인이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대안모형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정서인식의 명확성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모형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이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정서인식을 명확히 하고, 정서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줄임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지지된 두 가지 연구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가 자유도에서 1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χ^2 값의 차이가 .68로 유의하지 않고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도 연구모형 1이 더 좋아 연구모형 1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 2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 경로가 아닌 정서 변인을 통한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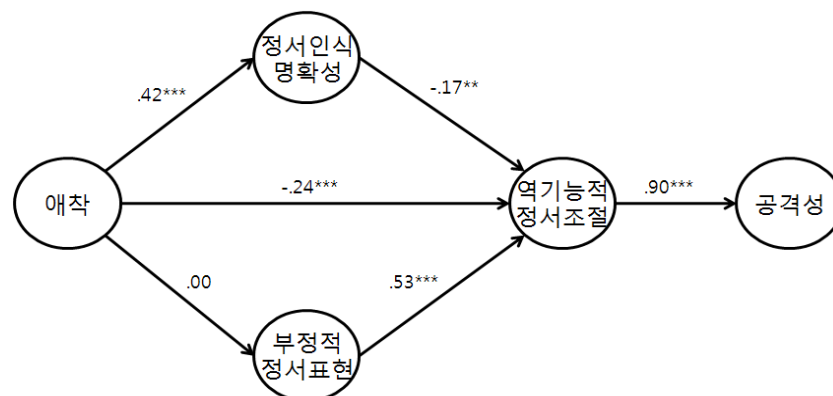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모형 1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어머니와의 애착이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거쳐 역기능적 정서조절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070 ~ -.007)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577 ~ -.052)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101 ~ -.01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의 애착이 역기능성 정서조절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신뢰도 구간이(-.288 ~ -.086)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 구간이(.876 ~ 1.668)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연구모형 1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이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역기능적 정서조절 자체를 통해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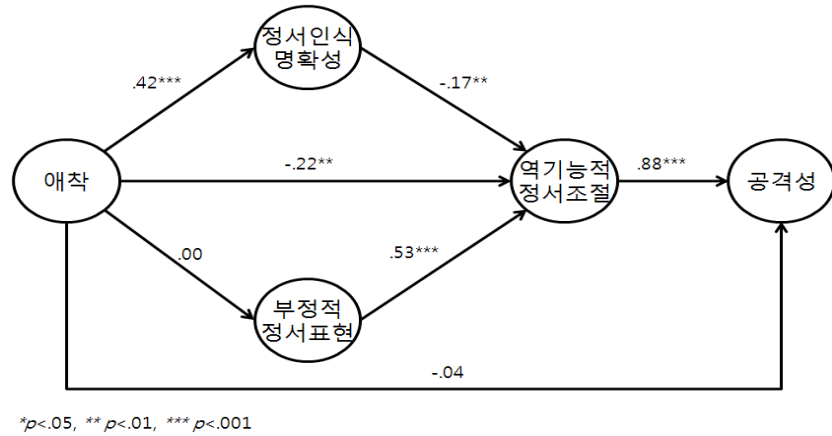
<표 2> 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PNFI	PCFI	AIC
연구모형1	253.58	71	.907	.927	.077	.704	.723	349.577
연구모형2	252.89	70	.905	.927	.077	.694	.713	350.889
대안모형	311.62	71	.877	.904	.088	.687	.705	407.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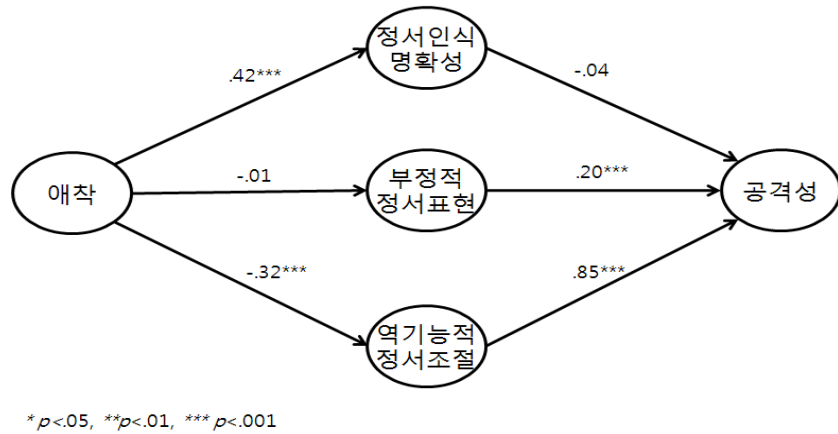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그림 3] 대안모형

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매개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간접 경로를 포함하는 연구모형 1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간접 경로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모형 2를 연구모형으로 상정하였고, 이 연구모형들을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들이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대안모형과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비교를 통해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정서 변인들이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대안모형보다 적합하였고, 연구모형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만을 포함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조절 능력이나 공감 능력 같은 정서 변인을 통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선숙, 2007; 박지연·이은희, 2008; Laible, 2007)와 일관된다.

둘째,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 세 변인이 병렬적인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성이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Mayer et al., 1992)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서정·현명호, 2008; 임전옥·장성숙, 2003)와 일관된다. 특히 세 정서 변인이 병렬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공격성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 변인 간 순차적 관계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거쳐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그 자체로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 안녕감을 주기보다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을 택하는 것과 같이 좀 더 효과적인 대처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Swinkels & Giuliano, 1995). 이런 순차적인 매개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도 정서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이 증가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정서 변인들 중 정서조절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중심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연구모형들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직접 경로를 상정하지 않은 연구모형인 연구모형 1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사이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2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정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인식의 명확성,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제공된다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으로, Laible(2007)의 연구와 이시은과 이재창(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류수정(201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애착 회피 및 애착 불안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이 낮고,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이 높은 것과 같이 애착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표현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의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애착 유형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것이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와의 애착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연구한 Denham et al.(2003)과 김지영(2007)의 결과와 일관되게 부정적 정서표현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개변인을 확인함으로써 공격적인 아동에 대한 개입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의 치료에 있어 정서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공격성 뿐 아니라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같은 보호요인은 키우고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같은 위험요인을 다루어 줌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정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 변인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박지연·이은희, 2008; Laible et al., 2004) 정서 변인 각각을 살펴볼 뿐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정서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정서표현, 역기능적 정서조절 중 정서조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선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변인들 중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격적인 아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할 때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 변인들을 매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인 아동을 치료할 때 생애초기부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어머니와의 애착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다룸으로써 그들에게 좀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공격성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청소년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 공격성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 공격성뿐 아니라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과 같은 정서 변인을 다루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공격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특히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취약성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실천적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공격성을

두드러지게 표출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애착이 불안정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선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약 집단에 학교와 상담소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취약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제도 중에서 아동과 부모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 대해서는 또래 상담이나 교사 상담을 통해 대안적인 애착 대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정서조절과 정서인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변인들이 모두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반응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격성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고 질문지가 학교장면에서 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격성의 경우 자기보고와 함께 교사나 부모 혹은 또래보고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정서의 경우에도, Hemmati et al.(2004)는 정서를 측정하는데 자기보고가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하였지만 반응 왜곡을 피하기 위해 다른 측정치로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측정변인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을 시간차를 두고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최근 들어 애착을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차원에 따라 나누고 애착 유형과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류수정, 2010; 이시은·이재창, 2005),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애착의 차원에 따라 정서적 능력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착 유형에 따른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일차적인 양육자가 어머니이고,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어머니와의 애착만을 살펴보았으나, 아버지의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박정녀·최해림, 2005)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어머니의 애착 뿐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정적 정서표현 척도의 신뢰도가 낮고, 역

기능적 정서조절 척도는 본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고 사용하여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는 등 도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로운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 또한 임의표집 하여 연구 대상의 연령,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정서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함께 측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2권, pp. 65-95.
- 김지영(2007). 정서표현성, 자기은폐, 인지적 정서조절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수정(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6권 제1호, pp. 1-14.
- 박정녀·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 pp. 249-264.
- 박지언·이은희(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 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 369-389.
-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 87-98.
- 손지영(2002). 공격신념, 사회정보처리, 정서조절능력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정·오윤희·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임상*, 제20권 제2호, pp. 259-270.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경·남현우(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 애착, 또래애착,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6호, pp. 215-238.
- 이서정·현명호(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제4호, pp. 887-905.
- 이소희·노경선·손석한·옥정·김광일(2002).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제41권 제2호, pp. 274-282.

- 이수정 · 이훈구(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1호, pp. 95-116.
- 이시은 · 이재창(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4호, pp. 947-963.
- 이주일 · 황석현 · 한정원 ·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1호, pp. 117-140.
- 이학식 ·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법문사.
- 임전옥 · 장성숙(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 259-275.
- 정동화(1996).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우 · 안정희 · 한선호(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정신병리 연구. *순천향 의대 논문집*, 제3권 제2호, pp. 613-625.
-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5호, pp. 1-15.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7-177.
- 홍세희(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3
- Arsenio, W., & Killen, M.(1996). Preschooler's conflict-related emotions during peer disput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7, pp. 43-57.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Basic Books.

- Bohnert, A. M., Crnic, K. A., & Lim, K. G.(2003). Emotional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1 No. 1, pp. 79-91.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9, pp. 350-373.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2). New York: Basic Books.
- Breckler, S. J.(1990). Applic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No. 2, pp. 260-273.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pp. 452-459
- Cook, E. T., Greenberg M. T., & Kusche, C. A.(1994).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understanding,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2 No. 2, pp. 205-219.
- Crittenden, P. M.(1992). Quality of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4 No. 2, pp. 209-241.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Vol. 74 No. 1, pp. 238-256.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Murphy, B. C., Maszk, P., Holmgren, R., & Suh, K.(1996).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8, pp. 141-162.
- Eisenberg, N., Fabes, R.,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1, pp. 109-128.
- Extremera, N., & Fernández-Berrocal, P.(2005).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Predictive and incremental validity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pp. 937-948.

- Gomez, R., & McLaren, S.(2007). The inter-relations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ggression during late adolescence. *Aggression Behavior, Vol. 33 No. 2*, pp. 160-169.
- Hemmati, T., Mills, J. F., & Kroner, D. G.(2004). The validity of the Bar-On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in an offender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7 No. 4*, pp. 695-706.
- Hubbard, J. A.(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Vol. 72 No. 5*, pp. 1426-1438.
- Kerns, K. A., Abraham, M. M., Schlegelmilch, A., & Morgan, T. A.(2007). Mother-child attachment in later middle childhood: Assessment approaches and associations with mood and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 9 No. 1*, pp. 33-53.
- King, L. A., & Emmons, R. A.(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5*, pp. 864-877.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Vol. 64 No. 1*, pp. 231-245.
- Laible, D. J.(2007).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Links with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 pp. 1185-1197.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7 No. 6*, pp. 703-716.
- Laible, D. J., & Thompson, R. A.(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Vol. 34 No. 5*, pp. 1038-1045.
- Lochman, J. E., & Salekin, R. T.(2003). Prevention and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and disruptive children: Next steps in behavioral intervention

- research. *Behavior Therapy*. Vol. 34 No. 4, pp. 413-419.
- Mayer, J. D., Gaschke, Y. N., Braverman, D. L., & Evans, T. W.(1992). Mood-congruent judgment is a general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No. 1, pp. 119-132.
- Mayer, J. D., & Salovey, P.(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Vol. 4, pp. 197-208.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57 No. 3, pp. 257-264.
- Orpinas, P., & Frankowski, F.(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1, pp. 50-67.
- Phillips, K. F., & Power, M. J.(2007). A new self-report measure of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ts: The regulation of emotions questionnair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Vol. 14 No. 2, pp. 145-156.
- Ramsden, S. R., & Hubbard, J. A.(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0 No. 6, pp. 657-66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45 No. 1, pp. 18-29.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ields,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for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7 No. 4, pp. 381-395.

-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2*, pp. 182-203.
- Spitzer, C., Sieble-Jürges, U., Barmow, S., Grabe, H. J., & Freyberger, H. J.(2005).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Vol. 74 No. 4*, pp. 240-246.
- Swinkels, A., & Giuliano, T. A.(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1 No. 9*, pp. 934-949.
- Turner, P. J.(1991).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2 No. 6*, pp. 1475-148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 Attachment and Children's Aggress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Variables

Park, Hee-Kyung* · Kim, Eun-Jung**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emotional variabl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 attachment and children's aggression. Emotional variables consisted of emotional clarity,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Three models were developed to investigate these mediating effects. In theoretical models,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was assum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ggression. On the other hand, in an alternative model, all mediating variables were assumed to have mediating effects at the same 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ith AMOS was us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SEM revealed that a dual mediation model fits the data well.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emotional clarity and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played the role of the main mediator between perceived mother attachment and aggression.

Key Words : attachment, aggression, children, emotional clarity,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effects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3월 13일, 심사완료일 : 3월 23일

* Seoul National Hospital

** Ajou University